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소식지

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Newsletter

발행처 :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제2의학과 간호학부 발행일 : 2015년 03월
발행인 : 김분한 편집인 : 탁영란, 황선영 TEL.(02)2220-0700 FAX.(02)2295-2074

학부 소식

■ 간호학부 '사랑의 실천관' 건립을 위한 바자회

2014년 11월 12일 간호학부 단독 건물인 '사랑의 실천관' 건립 기금 모금을 위해 동문, 교수 및 학생이 한마음이 된 바자회가 HIT 앞마당에서 열렸다. 교수님들과 2회 대선배님이신 이재구 동문의 진두지휘 아래 200여명의 간호학부 동문과 전체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단합하는 알차고 풍성한 자리이었다. 또한 간호봉사로서 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치매진단검사 및 상담, 혈압, 혈당 검사 등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버스킹 동아리 모노크롬의 공연이 있어 더욱 따뜻했던 하루였다.



간호학부 실습인증제의 일환으로 4학년 5명에게 학생수기상을 선정하여 나선제에서 시상하였다.

■ 간호학부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 선정

2014년도 대학 국제화 선도 프로그램에 간호학부 에서 지원한 2개의 제안서가 선정되어 진행 되었다. 7월에는 네덜란드 Utrecht University summer school의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에 2학년 4명과 3학년 6명의 총 10명이 2주일간 연수를 받고 왔으며, 2015년 1월에는 필리핀 Centro Escolar University의 지역 사회실습연계 국제보건 프로그램에 3학년 학생 7명이 참여하고 돌아왔다.



■ 간호학부 네덜란드 교환학생 Max 방문

2014년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네덜란드 Utrecht University 에서 교환 학생으로서 Max Willem van Megen이 우리 대학을 10주간 방문 하여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돌아갔다.



■ 국가고시 응원

2015년 1월 24일 간호학부 국가고시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각 학교의 응원 열기만큼은 뜨거웠다.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또한 학생회와 동아리 대표들로 구성된 응원단 들이 열띤 응원을 펼쳤다. 4년이란 시간동안의 노력을 쏟아 붓고 이제 진정한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될 발걸음의 시작이었다.



■ 입학 30주년 기념 졸업생 홈커밍 데이

2014년 10월 11일, 제15회 졸업생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홈커밍 데이가 열렸다. 홈커밍 데이에서는 20여명의 선배님들과 교수님, 재학생들이 함께 훈훈한 시간을 가졌으며, 간호학부 동아리인 모노크롬의 공연이 이어져 자리를 빛내 주었다. 선배님들께서는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후배들에게는 간호학부의 옛 추억과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더없이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 제 4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학술제

제 44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학술제가 11월 10일~11월 11일 이틀 간에 걸쳐 성대하게 거행 되었다. 11일에는 2학년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있었는데, 올해의 Mother Lamp는 한양대학교 윤인숙 과장님이 맡아주셨다. 4학년 선배들의 논문 계획안 발표가 있었고, 국제화 프로그램의 발표시간이 있었다. 또, 2학년들의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위하여 여러 공연팀이 축하 공연을 해주어 자리를 빛내 주었다.



■ RN-BSN 4학년생 산업체 시찰

2014년 11월 4학년 학생들이 통합 간호 실습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원을 견학하고 돌아왔다.



■ RN-BSN 학술제

지난 11월 10일 저녁 6시에 특별과정 세미나실에서 간호전공 3,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개최되었다. 모교 음악 대학 동문이신 송혜경 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상임 이사님을 모시고 '과학으로 만나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선후배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RN-BSN 학과장 협의회 학술대회 참가

2014년 5월 삼육대학교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경력관리'의 주제로 열린 RN-BSN 학술대회에 4학년 재학생 20여 명이 참가하였다. 특히 RN-BSN 과정 조화영 동문이 발표 연자로서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박사과정 진학 후기를 들려주어 후배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었다.



대학원 소식

■ 일반대학원 학위현황

2014년도 봄학기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현황(2014년 2월 졸업)

구분(석,박사)	성명	논문 제목
박사	김성희	암환아를 둔 어머니의 돌봄역할 경험
박사	김혜영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건강증진 실무역량의 기준 개발
박사	김수연	심장수술 환자의 회복의 질 예측 요인
석사	김유진	복강경 자궁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상실감, 성역할 정체감, 배우자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	이시은	중년 여성의 건강과 생활양식에 대한 주관성 연구
석사	임한나	중년의 죽음에 대한 주관성 연구
석사	오주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자의 질병단계에 따른 사회경제적 질병비용
석사	윤수경	혈액투석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
석사	주은경	남편의 산후조리 중요도, 교육요구도 및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석사	송미라	간호사의 조직 의사소통과 사건보고가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4년도 가을학기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현황(2014년 8월 졸업)

구분(석,박사)	성명	논문 제목
박사	강혜경	시설거주 노인여성을 위한 근력강화 훈련이 요실금과 신체기능에 미치는 효과
박사	김연하	보건관리자의 근로자 보건교육에 실무능력기준 개발
박사	손미라	암을 가진 군인의 직장복귀 경험
박사	안지원	재가노인의 성공적 노화 예측모형
박사	이애영	간호시뮬레이션 수업설계모형 개발
박사	정소영	입원 아동 가족의 가족 중심 돌봄 인식
박사	허수영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심리사회적 업무환경요인
석사	서희경	국내 민간 심폐소생술 교육기관 강사의 전문성인식 영향요인
석사	유선영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가족의 부양죄책감과 우울
석사	최신형	장기요양인정 조사자와 수급자 및 가족의 등급판정에 대한 만족도 비교
석사	김혜숙	재가노인의 낙상에 대한 지식, 낙상효능감 및 예방행위
석사	문설화	시설거주 노인의 우울 예측 요인
석사	하선미	노인의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학원 콜로키움

2014년 4월 11일 석박사 일반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김분한 학부장님께서 '정신발달 장애우의 목회 간호'를 주제로 콜로키움을 진행하셨다.



■ 동문 소식

한양대 구리병원 이선희 동문(8회)께서 2015-2016년도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4년간 동창회장으로서 수고하신 김현주 동문(10회, 제일병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도 1학기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구분(전공)	성 명	논문 제목
호스피스간호전공	양 순 진	중환자실 간호사의 사전의료의향서와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간호전공	이 은 숙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호스피스 기관으로의 전원의미
호스피스간호전공	전 현 식	간동맥화학색전술을 받은 간세포암 환자와 가족의 경험
정신보건간호전공	김 수 연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반응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간호전공	오 은 주	대학생 자존감과 자기에 성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선우홍미	지역사회노인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예방 행위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이 은 영	성인여성의 요실금 특성 및 자가간호 이행도
노인맞치매간호전공	홍 순 옥	노인성 난청인의 적응 과정 경험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이 나 희	병원 간호사가 지각한 산소요법 간호수행에 관한 연구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윤 나 리	크론병 환자와 가족의 우울 및 삶의 질
노인맞치매간호전공	김 정 은	흉부수술 환자를 위한 태블릿 PC기반 멀티미디어 교육자료 개발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이 주 연	중장년 여성의 치매인식도와 치매예방교육요구도 조사연구

2014년도 2학기 임상간호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구분(전공)	성 명	논문 제목
호스피스간호전공	김 건 하	의료인의 암성 통증관리에 대한 지식 및 수행연구
노인맞치매간호전공	명 선 미	성인 및 노인대상 혈액투석 환자의 여가생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이 지 영	일반 노인의 치매 지식과 예방, 조기검진의 관심도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조 미 정	중환자 가족에게 제공된 입실안내 교육의 효과 : 리플릿과 동영상의 효과비교
노인맞치매간호전공	김 경 옥	노인 암환자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맞치매간호전공	김 미 선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연구
노인맞치매간호전공	김 윤 희	병원 종사자들이 인식한 환자 안전문화와 노인 낙상 예방활동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안 선 희	시뮬레이션 기반 한국 전문 소생술 교육이 수행 자신감과 현장 적용 가능성 정도에 미치는 효과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양 재 영	치매센터 신규직원의 교육 효과 지속성에 관한 연구
노인맞치매간호전공	이 명 숙	간호사의 노인 낙상태도와 예방 실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관리전공	정 선 경	일지역 치매지원센터 이용치매환자의 현황 분석
노인복지관리전공	박 은 선	수술실 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업무수행 능력의 관계
노인복지관리전공	방 수 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노인층의 의료 이용만족도
노인복지관리전공	방 정 민	독거노인의 방문간호서비스 이해 정도와 자가 간호수행도에 관한 연구
임상사례관리전공	장 진 아	노인 자살위험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임상사례관리전공	김 진 홍	요양병원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현황과 실태
임상사례관리전공	손 명 하	외래 간호사의 환자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과 안전간호활동 수행정도

학생 활동

■ 새내기 배움터

2014년 2월 17일 ~ 2월 19일, 2박 3일 동안 강원도 원주 간현 수련원에서 14학번 새내기들을 위한 새내기 배움터가 열렸다. 간호학부 학생회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게임과 동아리에서 준비한 각종 공연들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총 70여 명의 간호학부 학생들이 함께한 자리에서는 마지막까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마쳤으며, 교수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덕분에 신입생들에게는 첫번째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입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 농촌 간호봉사

2014년 9월 13일 ~ 9월 14일, 1박 2일 동안 경기도 양평 여물리에서 농촌활동과 간호 봉사가 이루어졌다. 낮에는 피 뽑기 등의 농촌 활동과 혈압 혈당 치매 검사와 같은 간호 봉사가, 밤에는 학생회가 준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즐겁고 보람차게 마무리 되었다. 더불어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간호학부 학생들의 친목을 향상시키는 측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 2014 대동제

2014년 9월 22일 ~ 9월 24일, 2박 3일에 걸쳐 한양대학교 대동제가 열렸다. 간호학부 학생회에서도 학생들과의 교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간호학부 주점 '꽃 간호'를 열었다. 학생회 포함 40여명의 학생들이 운영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간호학부 학생들이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주점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또한 간호학부 동아리인 '모노크롬'의 live공연이 13년도에 이어 올해도 더해져서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가 제공 되었다.



■ 2015 간호학부 학생회

2014년 한 해 동안 간호학부를 위해 힘써준 제 2대 간호학부 학생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1년간 전 간호학부 학생회장 박동준, 부학생회장 김정민 외 16명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 을미년에는 새로운 간호학부 학생회장 김정민, 부학생회장 손희도를 중심으로 더욱 멋진 학생회가 되길 바랍니다.



1 간호학부 학생회장
김정민

2 간호학부 부학생 회장
손희도



■ 의대, 간호학부 연합동아리 아가페 활동



■ 간호학부 동아리 '보느'



국제화 교류 프로그램 후기

■ 돌이켜보면 꿈만 같았던 Utrecht에서의 2주

2013007573 김윤섭

2014년 7월 5일, 저는 제 인생에서 어쩌면 또 있을 수 없을 지도 모르는 2주간의 경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꽤나 치열했던 국제화 프로그램 면접 경쟁 속에서 운 좋게도 발탁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도착한 곳은 네덜란드의 위트레흐트라는 도시였습니다. 위트레흐트는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대략 4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위치한 Utrecht University에서 저희 국제화 프로그램팀은 2주간 각자 선택한 수업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서머스쿨 사무실에 들러 기숙사 키를 받고 대학의 위치, 교통편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기숙사의 경우 어떤 수업을 듣는 지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는데 저는 1인실이 아닌 2인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와이파이도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였고 시설도 꽤나 좋았습니다. 학교는 숙소에서 버스로 5정거장 정도 되는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교통편의 경우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한 2주 이용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주간 어떤 수업을 들을지는 미리 정해 신청을 하여 가는 것인데 제가 선택한 수업은 Pediatric Oncology (소아종양)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2학년인 저로서는 소아종양에

대한 기초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음에도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그렇게 긴장을 하며 학교에 도착해 처음 해당하는 수업의 교수님과 간단한 만남을 가졌고 앞으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아종양 수업의 경우 수강인원은 대략 20명 정도였고 네덜란드 학생이 절반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포르투갈, 스페인, 카메룬, 그리고 우리 한국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에 담당 교수님을 부를 때에 습관대로 Professor 라고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는 교수가 아니라 선생님이니, 편하게 Teacher 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라며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던 기억이 인상 깊었습니다.

첫 주 동안에는 '소아종양은 무엇인가'를 초점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첫 주에 받았던 수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실습 수업이었습니다. 다른 것 보다도 일단 실습실의 현실성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기본적인 침상의 상태부터 모형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실제와 가까웠기 때문에 실습을 하면서 더욱 현장감 있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실습 시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에도 느끼는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국내에서 실습수업을 들을 때에는 긴장감이 별로 없었는데 정말 집중하여 실제처럼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이에겐 현실감 넘치는 실습실의 환경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 수업에서 기억이 남는 것은 병원을 방문한 것 이었는데 사실 국내의 소아종양 전문 병원을 방문해 볼 기회가 없었기에 객관적인 비교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느낌으로 표현할 지라도 암스테르담 소아종양센터의 환경은 정말 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 함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사소한 디자인에서부터 그 점을 고려한 것이 보였습니다. 벽을 장난감화 하여 만든다거나 일부러 탁 트인 부지를 선택하여 병원을 지어 시야를 트이게 하는 등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국제화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을 일깨워 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해외의 기술과 환경이 좋다고 말을 하여도 직접 느껴 보지 못하면 상상일 뿐입니다. 후배들 에게 반드시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통해 상상일 뿐이었던 것들을 현실로 바꾸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간호학생의 사춘기’를 끝내게 해 준 필리핀 국제보건 교육프로그램

2012013687 이지연

3학년 병원실습을 하면서 간호사라는 나의 길에 큰 혼란이 찾아왔다. 학교에서 배운 많은 이론들이 병동에서는 적용되지 않았고 ‘내가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할 수 있을까’ 등의 많은 고민으로 간호학도의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필리핀 국제화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간호의 모습이 숨어있을 것이란 희미한 희망아래 지원을 하게 되었다.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신청한 14일간의 프로그램에서 간호, 문화, 친구에 관하여 많은 것을 깨달았다. Centro Escolar 간호대학의 지역사회간호 실습을 위해 INAON 마을의 가정에서 직접 숙박을 하며 현지 가정의 건강문제를 사정하고 교육하는 실습을 하였다. CEU 학생과 우리 학생들이 1:1로 각각 한집에 배치되었다. 이들의 가정 환경은 매우 열악했는데, 주인 없는 가축들이 매우 많아 개나 닭이 집으로 들어 오기도 했고,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다. 주방은 위생관념이 부족하여 설거지도 거의 하지 않았고 개미와 도마뱀이 벽에 기어 다니고 있었으며 변기는 물을 부어 내려야만 했다. CEU 교수님과 함께 숙박을 하고 강의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간호 사정과 중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토의를 하기 원하면 자유롭게 대화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 처음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해 공부할수록 내가 직접 간호 할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설랐다. 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영어로 CEU 학생에게 말해주면 CEU 학생이 필리핀어로 통역해주는 식이었는데 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24시간 같이 생활하다보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간호문제들도 발견하게 되었다. 마지막 날은 내가 바로잡아줄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사진을 찍고 이에 대해 그들과 많이 대화를 한 것 같다. 필리핀은 피임이나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부가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환자의 권리가 우리 나라처럼 높지 않기 때문에 실습학생들이 직접 환자를 만지고 사정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실습할 때 거의 observation으로 이루어지는데 임신부의 배를 직접 만지고 사정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1년 동안 해보지 못한 환자사정을 처음으로 행해본 것이다.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다.

내가 느낀 필리핀의 문화는 정성과 배려였다. 그들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2주 동안 교수님과 학생들이 우리 곁을 함께 했다. 학생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했는데 영어가 부족한 우리를 위해 말을 천천히 해주고 한국말을 조금씩 배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특히 감명 깊었던 점은 간호 교육을 할 때였다. malnutrition 환자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모든 교육 자료를 손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만약 나였으면 프린트로 자료를 뽑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텐데 말이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하면 한번 읽고 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글을 쓰고 중요한 부분은 색을 칠해 교육자료를 주면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간호문화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내가 간호를 행하고자 할 때 진심을 담아야 상대방도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국경을 넘어선 friendship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데 하루종일 영어를 구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4시간을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나와 같은 20대 또래 친구라는 것을 느꼈다. 연예인, 이성친구, 미래에 대한 걱정 등 매일 밤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한국과 필리핀의 다른 점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쓰레기장 위에서 먹을 것을 찾는 어린이 세 명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생각나는 것을 칠판에 쓰게 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당연히 ‘절망, 가난, 불쌍...’ 등에 관한 암울한 단어를 나열하였다. 하지만 CEU 친구들은 ‘보물찾기, 삼각관계, 희망...’ 등의 단어를 내놓았고, positive와 negative 그리고 객관적 관점을 내놓았다면서 칭찬을 받았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왜 가난한 그들을 불쌍하게만 봐야하는가. 나만의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은 아닐까 그들도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희망이 없다고 단정지어버린 것은 아닐까. 한국에서도 나도 모르게 환자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의했던 것은 아닐까.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는 큰 깨달음을 친구들을 통해 얻었다.

필리핀 친구들과 굉장히 친해져서 마지막 날에는 모두 울음바다 되었다. 서로 헤어지는 길에는 제시간에 헤어지지 못해 3발자국 갈 때마다 인사를 했다. 현재는 한국과 필리핀 총 18명의 친구들이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 많은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도 물론 늘었지만 나의 간호 학생으로서의 사춘기에 종점을 찍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환자에게 무엇을 ‘해주려고’만 했지 그들과 ‘함께’ 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을 느끼게 해준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따라서 내가 의료를 행하는 갑의 입장이 아닌 그들의 곁에서 의료를 함께 행하는 단순한 ‘보호자’ 같은 간호사가 되도록 해준다. 이제 간병인이 간호술기를 해도 간호사 영역이 침범 당했다고 화가 나거나 간호사로서 신념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전문적 간호사는 환자에게 해가 되는 모든 환경을 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계기로 나만의 간호사 상을 뚜렷하게 만들었고 앞으로 이를 위해 달려갈 일만 남았다. 환자와 함께 라는 강한 신념위에 다가올 미래가 두렵지 않고 그저 설레기만 하다.



편집 · 정리 : 김유진, 고찬영, 전은하